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0호 【루계 제24683호】 주체103(2014)년 9월 27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자

당정책옹위전의 불바람속에 이룩되는 자랑찬 증산성과

석탄공업부문에서 화력탄생산 1.6배이상 장성

석탄전선에서는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벌어졌다.

특히 화력탄보장의 큰 몫을 맡고있는 서부지구 굴지의 탄전들에서 최근년간에 있어본적이 없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비약적인 생산성과가 이룩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화력탄보장탄광들에서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107%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이전시기에 비해 화력탄생산이 하루평균 1.63배 장성한것으로 된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 영웅적위훈을 아로새겨가는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의 당중앙결사옹위정신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북창의 대동력기지를 비롯한 각지 화력발전소 저탄장들에는 석탄산이 우줄우줄 솟아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접수한 그 시각부터 석탄전선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갖추고 석탄생산에 진입하였다.

석탄공업성의 책임일군들이 서부지구 화력탄보장탄광들의 주요전구들에 전투지휘소를 정하고 련관부문, 련관단위와의 협동작전을 벌리며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투지휘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성의 모든 정무원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탄광의 갱막장들에 일제히 내려가 탄부들과 생산전투를 함께 벌리며 걸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줌으로써 맡은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성당조직을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한마음을 안고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강도높이 들이대고있다.

화력탄생산보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서부지구 탄광들에서 지난 4일부터 화력탄생산량과 보장실적이 급격히 장성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눈부신 생산성과가 이룩되였다.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수도 평양의 불빛을 지켜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그 시각부터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다. 1갱 채탄3중대, 2갱 채탄1중대와 3중대, 3갱 채탄2중대와 4중대, 청년갱 채탄1중대, 5갱 채탄2중대와 3중대, 7갱과 8갱의 채탄3중대, 9갱 채탄1중대와 4중대, 10갱 채탄2중대와 3중대, 12갱 채탄1중대와 4중대를 비롯한 탄광의 모든 채탄중대들에서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그리하여 4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이전시기보다 1만t의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주는 위훈을 세웠다.

천성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전시기보다 9천여t의 석탄을, 령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1만 천수백t의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더 보내주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기본전투단위들을 한개씩 맡고 막장으로 내려가 석탄증산의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면서 저탄장에 석탄이 쌓일새없이 화력발전소로 화차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전투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현재까지 이전시기보다 1만 5천여t의 석탄을 더 생산보장하였다.

제남탄광과 덕성탄광에서 증산의 포성이 높이 울릴 때 서창청년탄광, 형봉탄광, 덕천탄광에서도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특히 형봉탄광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석탄생산이 1.8배로 장성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이 막장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물을 뽑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채탄구역을 확장하기 위한 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작전을 주동적으로 지휘해나감으로써 화력발전소로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도 세차게 일어났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지난 20일동안에 1만여t의 석탄을 더 보내주었고 인포탄광, 회안탄광에서도 증산목표 수행의 자랑찬 승전고가 높이 울리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득장청년탄광, 룡산탄광, 명학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분연히 떨쳐일어나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 련합기업소직인 석탄생산은 불과 며칠동안에 이전시기에 비하여 1.6배로 장성하는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최근 20년간에 처음 보는 석탄생산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오늘날 석탄생산을 늘이는 투쟁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를 지키는 영예로운 전투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막장마다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탄광의 화력탄보장실적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3배로 장성하는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구장지구의 룡등탄광에서도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전시기보다 하루평균 300t이상의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주었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접한 그 시각부터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많은 량의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주었다.

각지 탄광기계공장들에서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이 벌어지는 탄광들에 더 많은 설비들과 부속품들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벌어졌다.

득장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여러대의 압축기를 원상복구하고 밀폐식탄차바퀴를 비롯한 탄광들에서 수요가 높은 주요설비부속품들과 각종 소공구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리였다.

덕천탄광기계공장, 순천탄광기계공장,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을 비롯한 각지 탄광기계공장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증산투쟁으로 들끓는 탄전들에 더 많은 탄차와 소공구들, 탄광설비부속품들을 보내주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떨쳐일어나 치렬한 증산돌격전을 벌린 20여일동안에 이룩한 생산성과는 소리쳐 자랑할만 하다.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증산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9월 주체철생산계획 앞당겨 수행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고조전투장의 모든 초소, 모든 일터마다가 증산투쟁으로 끓고있는 때에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9월 주체철생산계획을 열흘 앞당겨 끝낸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볼 때 주체철생산이 1.5배이상으로 장성한 이 자랑찬 성과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현장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들과 함께 쇠물내를 말으며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한의 주체철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생산자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제때에 찾아내여 평가해주고 앞선 작업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기있게 벌려나갔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며 대중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분출시킨 결과 주체철생산실적이 날마다 올라갔다.

당과 조국앞에 주체철생산을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새겨안은 5월17일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공장일군들부터가 생산현장에 늘 붙어살다싶이 하면서 직장별,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경쟁속에 혁신하고 비약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갔다.

당이 제시한 주체철생산목표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주체철생산자들이 9월에 들어와 전례없는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특히 주체철직장 1호산소용융작업반의 로동계급이 매일 맡겨진 계획을 평균 200%로 수행하며 증산경쟁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작업반장 최원일, 교대장 김성철, 부교대장 김원철동무들과 용해공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갔다. 로운영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매일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끊임없이 늘여온 김성철교대에서는 지난 9월 21일 새벽에 일 주체철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직인 9월 주체철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구직장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주체철원료를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리철우작업반의 로동계급은 설비를 제살붙이처럼 다루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어 회전로의 숨결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지켜보수직장의 로동계급도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직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설비의 가동률이자 곧 생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기되는 설비보수전투에서 기존관념을 깨버리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세우며 혁신을 일으키였다. 얼마전에도 이곳 로동계급은 5일이 걸린다던 회전로의 다이야교체작업을 이틀동안에 해내는 새 기록을 세웠다.

그 어느 직장, 교대에서나 당이 제시한 주체철생산목표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혁신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일 주체철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고 9월생산계획을 열흘이나 앞당겨 완수한 이곳 로동계급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욱 기세충천하여 내 조국의 하늘가에 주체철의 붉은 노을을 끝없이 피워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옥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불동을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신성천철도분국에서 —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화력발전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굴지의 기계제작기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화력발전소에 보내줄 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며칠전 미루대치차와 대형감속기를 생산하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로 떠나보낸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이어 각종 대치차, 소치차가공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그리고 여러대의 대형감속기본체주물품을 성과적으로 부어냄으로써 소재가공을 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현시기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화력발전소들의 설비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에 필요한 발전설비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련합기업소에서는 화력발전소설비생산을 다그쳐 끌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고 공정별로 기술력량을 보강하였다. 생산적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기 위한 분담이 진행되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직장과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있다.

련합기업소 어디서나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보내줄 설비생산을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주물, 주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대담한 착상으로 거대한 치차소재들을 제때에 부어냈으며 대형감속기본체의 용해 및 주물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치차, 대형기계, 1가공, 발전제관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가공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치차직장의 일군들과 기능공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설비들의 가공속도와 정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가공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대형기계직장과 1가공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발전제관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가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구, 장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기술적요구가 높은 발전설비가공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소재가공이 끝나는 즉시 대상설비들을 실어보내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대안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는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중요대상탐사에 력량을 집중

평안북도탐사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평안북도탐사관리국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이 더 많은 지하자원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이곳 탐사관리국에서는 중요탐사대상들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지하수와 지열수, 유용광물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탄광, 광산들과 규모가 크고 개발조건이 유리한 중요대상에 탐사력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탐사관리국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탐사대상들에 대한 종합계획과 대상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관리국일군들은 중요대상탐사가 진행되는 전투현장들에 수백m에 달하는 보벽관과 화공품을 비롯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탐사대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시추탐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도의 여러 지질탐사대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중요대상탐사를 맡은 탐사대의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불같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시추기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달 계획된 시추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운전지질탐사대의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은 몇해동안 진행하던 건설대상기반탐사를 중단없이 내밀어 지난 1월까지 끝내고 어느 한 대상건설에 필요한 지열수를 찾아내기 위한 탐사를 진행하여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신의주지질탐사대에서도 도의 육아원과 양생원건설을 위한 기반탐사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대상건설장에서 요구되는 지열수를 찾아냈다.

도탐사관리국아래 지질조사부문의 조사원들은 더 많은 지하자원을 찾아내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땀과 노력을 바쳐나가고있다.

이밖에도 비래봉지질탐사대와 동림지질탐사대를 비롯한 모든 탐사대들에서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유용광물매장량을 확정하기 위한 지하자원탐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을 하루빨리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킬 일념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지난 9월 중순 희천6호발전소 언제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를 전부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려단에서는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과 방수로, 물고기길 등 여러 대상공사를 동시에 내밀면서 다리보제작과 설치를 위한 선행작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려단의 전투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중요대상인 언제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어 전반적인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였다.

신동혁, 강영훈, 리후근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년초부터 언제공사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굴착과 성토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었다.

려단에서는 언제건설에서 혼합물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혼합기들의 기술적개조를 다그치고 선별장건설을 앞세우며 자동차에 의한 혼합물의 단번운반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언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지난 5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쳐졌다. 이미 우안의 4개 경간에 대한 언제기초와 보강판타입, 해당 높이까지의 수문기둥타입공사를 진척시킨 려단에서는 장마철전에 좌안지대에까지 공사를 확대해나갈 구체적인 작전밀에 각 대대력량을 총집중시키고 가물막이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었다.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광란하는 강물이 3차례에 걸쳐 가물막이뚝을 휩쓸었지만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5월 한달동안에만도 근 8 000㎥의 성토와 진흙속벽다짐공사를 진행하고 백수십m의 구간에서 콩크리트2선가물막이공사를 다그쳐 좌안언제공사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정주시대대 전투원들은 앞선 굴착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혁신의 앞장에 섰으며 룡천군, 동창군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 돌격대원들은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줄기찬 맞들이전을 벌려 수만㎥의 굴착과제를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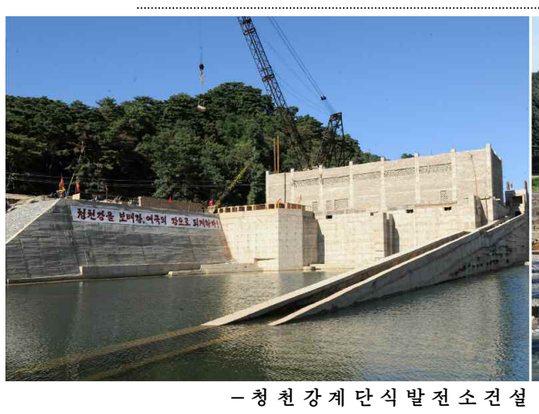
언제건설의 전환적계기는 지난 7월 더욱 확고히 열려졌다. 곽산, 동림, 구장, 향산군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의 전투원들은 앞선 휘틀조립방법을 받아들이고 련양기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진동다짐속도를 종전보다 1.5배이상 높여나갔다. 이 투쟁속에서 지난 8월 중순 좌안언제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가 전부 완성되였으며 련이어 지난 9월 중순 우안의 4개 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공사까지 빛나게 결속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발전기실 하부구조물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를 하루빨리 끌낼 통이 큰 목표밑에 총돌격전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류 기 풍

전구간의 언제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 완성

희천6호발전소건설장에서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평안남도려단에서 —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우리 장군님 뿌리신 씨앗들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이끄시여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긍지높은 현실을 생각할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끌까지 관철하는것처럼 영예롭고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난 8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지윤활유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되고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마음은 뜨거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절절한 그리움에 넘치시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순간 일군들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라의 윤활유공업을 발전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공장터전도 잡아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십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공장의 현대화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물겹게 되새겨졌던것이다.

뜨거운 격정에 가슴을 들먹이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몸소 일떠세워주신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장군님께 매일매일 생산보고를 올린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자, 바로 이것이 피눈물의 12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할 철의 의지를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깊이 새겨주시는 절절한 당부이다.

잊을수 없다. 두해전 1월 중순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여러 건설대상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건설대상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건축물들의 시공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날의 혁명활동보도를 전해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패친것은 무엇이였던가.

언제인가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그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만든 현대적인 기계가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을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우리 원수님,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 오실때마다 늘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꼭같은 심정이라고, 오늘 공장을 돌아보며 새 기계들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시며 장군님께 이 성과를 꼭 보고드리겠다고 하실 때 그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현대적인 기계생산을 위하여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을 다시 뵈옵는것만 같아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단위들이 기세차게 용을 쓰며 내달리고 대원수님들께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번영과 행복의 밑천들이 실질적으로 은을 낼 때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양말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창성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과 자강도안의 기계공장들…

지난 7월 고산과수농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과원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얼마나 보기 좋소,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펴나고있소,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끝간데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발자취가 굽이굽이 어려있는 철령아래에 대규모 과수농장이 건설된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사의 갈피갈피를 세세년년 빛나게 기록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돌격대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심어주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퍼질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하나 관철하였다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며 대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령도의 자욱자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끝없는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들이 로작의 주옥같은 글발들에 뜨겁게 실려온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실 의지를 안으시고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얼마이고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또 얼마이던가.

강성국가건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전의 뜻이고 념원이였다.

한평생 애국애민의 숭고한 서사시를 수놓으시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모든 토대들을 다 마련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과학이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우리 혁명실천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뿌려주신 번영과 행복의 씨앗들을 잘 가꾸고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면 그것이 곧 강성국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영예를 빛나게 떨쳐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영 원 한 생 명 선

◇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고있다.

…

철령아래 파일향기 차고넘쳐 목이 메냐
이 절경을 펼친 은덕 사무쳐와 목이 메네
장군님의 인민사랑 원수님이 꽃퍼주신
예가 바로 부흥하는 예가 바로 부흥하는
내 조국의 모습일세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을 철령기슭에 펼쳐진 청춘과원을 통하여 진실하고 감동깊게 구가한것으로 하여 노래는 시대의 명곡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다.

철령아래에 활짝 꽃펴난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결실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세계적창조물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투쟁속에 마련된 시대의 기념비들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드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눌라운 성과들도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번영을 위한 만년재보이며 영원한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끌까지 완성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토대를 다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과 온 나라에 펼쳐진 인민사랑의 화폭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얼마나 고귀한 재보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가 끊없이 울려퍼지게 된다는것은 혁명의 진리이고 력사의 필연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조국번영의 밑천들과 행복의 씨앗들을 잘 가꾸고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면 그것이 곧 강성국가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현지지도단위들이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는 현지지도단위들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 절세위인들의 애국업적이 끝없이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정주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이시는 길에서

후대사랑을 전하는 구호

주체102(2013)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새로 정중히 모시는 문제로부터 침실과 가구, 난방과 전기보장대책뿐아니라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야영소의 운영과 개건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지침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구내에 있는 구호들을 보아주시였다.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와 같은 구호들을 써붙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말로 이 구호들은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주는 잊지 못할 글발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을 길이 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중 요 한 사 업

동해명승 마전해수욕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마전해수욕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전직후인 주체42(1953)년 10월에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곳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도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여 해수욕장을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꾸릴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안 가보신데가 없으며 겨치좋은 곳마다에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들을 일떠세워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마전해수욕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수준으로 꾸리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을 길이 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생 산 을 높 이 는 비 결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공장의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진문헌과 사적자료들을 보아주시면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이곳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이 공장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정은 각별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 공장에 때때로 들리시였으며 늘 관심하시며 외우군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이 공장을 중시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자강도에서는 순간 장군님께서 제일 어려울 때마다 찾아주신 공장, 품들여 CNC화의 본보기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이 공장이 떠올라 제일먼저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증산성과로 빛내여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늘 강조하지만 생산을 높이는 비결은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 있다고,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공장에 어려있는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김 철 혁

당의 통일단결은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오늘 우리 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헤치면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강위력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참모습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당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당의 위력은 곧 단결의 힘이며 통일단결된 당만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의 통일단결에 혁명의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시고 열화같은 동지애로 일심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혁명령도의 전기간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단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일심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의 종자로, 근본방도로 내세우시고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비상히 높이시여 우리 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강위력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혁명유산인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보다 숭고한 높이에 올라서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철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인 일심단결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도록 하시고 천만군민을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로 믿고 내세워주시는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떨치고있으며 당의 통일단결은 더욱더 순결하고 굳건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가장 공고한 단결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단결의 공고성과 위력은 그 중심의 확고부동성에 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유일중심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완성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우리 당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운명이시다.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군민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서 동지애의 숭고한 화폭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단결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전체 당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로 준비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공고한 단결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신뢰심은 하늘에 닿고있으며 우리 당의 혼연일체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맹세로 불타고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사소한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것이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풍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원수님께 기쁨드릴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는 천만군민의 충정은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히 당을 따라 한길을 가는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억척불변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불패의 단결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반석같은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가 보여주는 철의 진리이다.

우리 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전당에 오직 수령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고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는 이색적인 사상요소들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전체 당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과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당은 당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왔다.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수령의 뜻대로 움직이며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서는것이 통일단결로 위용떨치는 조선로동당의 긍지높은 모습이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학습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전당에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끌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나가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이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당의 통일단결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승화시키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인 인민군대의 선구자적 역할에 의하여 결사수호되고있는 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도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였고 혁명투쟁의 전기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견결히 보위한 충정의 대오도 바로 인민군대이다. 혁명의 년대들마다 높이 울려퍼진 구호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들에는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총대로 지켜가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백두밀림에서 첫 자욱을 뗀 때로부터 수령옹위, 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인민군대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견결한 원칙성,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에 의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굳건히 고수되여올수 있었다.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당의 통일단결의 제일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총대로 조선혁명의 명맥을 지키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우리 혁명의 단결의 전통,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려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확고한 의지의 과시이다. 사상과 신념의 강군, 선군혁명의 억척의 지지점인 인민군대가 있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선군혁명의 만년초석이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유산인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학

위대성교양을 생동한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황주군 장천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당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연구발표모임, 해설담화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농장원들이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당세포비서,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계기와 정황에 맞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당건설업적을 농장원들에게 깊이 심어주도록 하고있다.

특히 리당위원회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선전을 황주군에 깃들어있는 생동한 사실자료와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가을걷이전투로 들끓고있는 농장벌에 나간 리당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 당건설과 그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생동한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해설해주었다. 이와 함께 리당일군은 새 세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장천협동농장이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농장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가며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장원들과 청년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당면한 가을걷이에서 혁신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들을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홍 철 남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사고와 실천의 첫째가는 기준-인민의 요구와 리익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자면 무엇보다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사고와 실천의 첫째가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체험한 계기가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어느날 서창청년탄광 2갱에 들어갔던 책임비서 리창길동무는 갱의 생산실적이 떨어지고있는 원인의 하나가 로동자들의 출근거리가 멀기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문제는 그곳에 자주 내려가본다고 하는 일부 일군들이 탄광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는데 있었다. 료해해보니 2갱에 제대군인들이 많았다. 당책임일군은 그들의 살림집을 갱가까이에 지어줄 궁리를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일군들은 당면한 석탄생산실적부터 쑥 높여놓고 살림집건설을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물론 생산도 중요하다. 하지만 탄부들의 생활을 먼저 관심하고 풀어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협의회를 열고 그루를 박아 말하였다.

《난 오늘 제대군인들의 생활에 대하여 료해하면서 가책되는바가 컸습니다. 당에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실지 발이 닳도록 뛰였더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였겠습니까? 2갱 제대군인살림집문제는 미룰수 없는 과제입니다. 로력이 해결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일군들과 보장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동씩 맡자는것을 제기합니다.》

그의 말은 제대군인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면에서는 다른 탄광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던 일군들을 잠에서 깨워주었다.

곧 제대군인살림집건설이 련합기업소적인 사업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자체로 해결할 결심을 내린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일군들과 보장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목재생산전투를 조직하였다. 그 앞장에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비서들인 안형진, 변창남동무들이 서있었다. 이렇게 되여 10일동안에 수백㎥의 목재를 해결하였다.

살림집건설은 짧은 기간에 끝났다. 제대군인탄부들은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를 비롯한 문화용품들과 가구들, 부엌세간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아담한 살림집들에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기념일을 맞으며 제대군인들의 결혼상도 성의껏 차려주어 그들이 당의 고마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석탄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사고와 실천의 첫째가는 기준으로 삼고 일하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로동자들이 바라는것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립장에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뛰고 또 뛰는 일본새이다.

지난해 이미 있던 20t능력의 오리공장을 400t능력의 오리공장으로 개건할 높은 목표를 세웠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벌려놓은 공사도 많은데 그 숱한 자재와 로력을 또 어디서 해결하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결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리공장을 개건하고 활성화하여 탄부들의 집집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게 하고 그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자는것이 당위원회일군들의 목표였다.

야외오리사, 종금오리사, 비육오리사, 새끼오리사, 종합축사, 사료창고, 고기가공실건설과 오리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벌어졌다.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오리공장이 훌륭하게 개건되고 올해 5월부터는 기업소안의 굴진공, 채탄공들에게 달마다 오리를 여러마리씩 공급해주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월봉탄광 로동자 김성근동무의 결혼상도 차려주고 텔레비죤수상기와 이불장을 비롯한 가정용품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어 당의 고마움을 절감하게 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일군들의 투철한 복무관점은 그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고 석탄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준 원천으로 되였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업소적인 상반년도 화력탄생산계획이 넘쳐 수행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우리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중이 요구하고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해놓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이곳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우고 실천에 구현하는 일군이란 어떤 일군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에게 더 큰 복리를 가져다줄수 있겠는가고 모지름을 쓰면서 종업원들을 위한 일거리를 끊임없이 착상하고 설계해나가는 일군, 무엇을 하자고 호소하는데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바라는 문제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립장을 가지고 한몸을 내대며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일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 종업원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는 일군, 바로 이런 일군들이 당이 바라는 일군들이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이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당일군의 보람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많은 대상들이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높은 목표들이 세워지고 그 실현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이 펼쳐지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위성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건설이 진행되고 청진시에서는 포항중심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문화휴식터들이 일떠서고있다.

날을 따라 새롭게 변모되는 조국강산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당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대오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나가는데 당일군의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은 인민사랑의 한평생이였다.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은 이민위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대로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 이것은 우리 당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집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다. 인민의 웃음소리에서 기쁨을 찾을줄 알고 인민의 행복속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줄 아는 일군만이 우리 당의 참된 일군으로 될수 있다.

◇당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인민을 위해 당일군이 있다. 당일군들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옳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의 사업기풍,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우리》라고 불리우며 누구나 존경하고 따르는 어머니당일군이 되여야 한다.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

버력과 보석

강동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강동기초식품공장에는 보배로 떠받들리는 혁신자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어제날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을 안고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성장의 자욱자욱에 깃든 가지가지의 사연들은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던 박동무가 공무작업반에 갓 배치되여왔을 때였다.

새 종업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박동무에 대하여 료해하던 초급당비서 윤재영동무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기대와 어긋났던것이다.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것을 보면 앞으로의 생활은 불보듯 뻔하다, 가정생활도 안착되지 못한것 같다, 작업반에 골치거리가 생겼다는 등 사람들속에서 오가는 말은 초급당비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대로 내버려둘수는 없다. 오만자루의 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바른길에 세워주자.)

이렇게 결심한 초급당비서는 박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더 깊이 주시해보았다.

그의 장점을 찾아보는 과정에 용접기술이 능하다는 점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초급당비서는 곧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기름생산공정을 자동흐름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박동무에게 맡겨보자는 그의 제기에 다들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초급당비서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동무를 대담하게 믿고 우리가 힘껏 밀어주자고, 설비도 개조하고 사람도 개조하면 얼마나 좋은가고 절절히 말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는 일군들을 감동시켰다.

하여 박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가 무어졌다.

그때부터 박동무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겨났다. 매일저녁 초급당비서에게 기술혁신과제추진정형을 보고하고 다음날계획을 함께 토의하는것이였다. 그는 점차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창조의 보람을 느끼게 되였다.

몇해후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마치였다. 그에게는 훈장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지금은 공장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과제들을 도맡아 수행하는 보배로 떠받들리고있다.

당조직의 보살핌속에 새 모습으로 태여난 사람들속에는 가공작업반 홍동무도 있고 열관리작업반 궁동무도 있다.

그들이 안고있는 사연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된다.

내버려두면 버력이 되고 품어주면 보석이 된다. 병든 자식, 못난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이 품어안아 키워주는 어머니처럼 당일군들이 한사람한사람에게 오만자루의 품을 들일 때 결코 내버릴 버력이란 없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친부모의 심정으로

연암갱목생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로동자들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있다.

언제인가 동계수작업소에 온실을 새롭게 건설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동계수작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이 긴장한데로부터 온실건설을 제때에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 문제를 놓고 초급당일군은 작업소의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심심산골에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로동자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기 위해 일군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그길로 온실건설장으로 나간 초급당일군은 작업소일군들과 함께 두팔을 걷어붙이고 온실건설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렇게 되여 동계수작업소에는 겨울철에는 물론 사시장철 로동자들에게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온실이 번듯하게 건설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동계수작업소, 형제수작업소를 비롯한 사업소의 여러 작업소들에 온실과 집짐승우리, 종합편의시설들도 그쯘하게 건설하여 로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후방사업성과는 그대로 동발나무생산성과로 이어져 사업소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 떨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질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매 사람의 소질과 꿈을 소중히 여기고

북청군 라하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북청군 라하과수농장에는 고향땅을 빛내이는데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농업근로자들이 많다.

그들의 성장의 밑바탕에는 농업근로자들의 소질과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꽃피워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해온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자주 내려가 군중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제기되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과수제1작업반 농업근로자 조성섭동무가 지금도 뜨겁게 추억하는 하나의 사실을 실례로 들어보자.

어느해 풀베기전투때의 일이다.

작업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이 맹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농업근로자들의 풀베기실적이 쑥쑥 치달아오르고있었다.

과수제1작업반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난 초급당비서 김석식동무는 쉴참에 조동무와 마주앉았다.

일이 힘들지 않는가,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던 초급당일군은 그가 늘 끼고다니며 보는 책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했다.

조동무는 뒤더수기를 문지르더니 책을 내놓았다.

그것을 펼쳐보는 초급당일군의 놀라움은 컸다. 과수전문가들에게 절실한 책이였다. 향학열이 대단하였다.

《맡은 일을 잘하자고 해도 알아야 하겠기에…》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사실 사업계획에 따라 그와 담화하면서 일에서 보다 열성을 내게 하려던참이였는데 가슴속에 그런 소중한 지향이 자리잡고있는줄 미처 몰랐던것이다.

(이 좋은 싹을 귀중히 여기고 꽃피워주어야 한다.)

그후 초급당일군은 조동무의 사업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그의 남다른 열망에 맞게 배워주는 사업을 착실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군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켰다. 여러 과수농장들과 과학연구기관에도 보내여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적극 배우게도 하였다.

조동무는 피타게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해충구제방법을 받아들였으며 맡은 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였다.

조동무만이 아니다.

농산제5작업반 반장 박동수, 농산제2작업반 1분조장 리운철, 기계화작업반 조명희동무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이 당조직의 관심속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과수, 농산, 축산, 건설, 농기계 등 여러 분야의 한다하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자라났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재들을 키우는 사업을 중시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소질과 지향을 제때에 찾아내여 꽃피워주는데 더욱 품을 넣었다. 그것은 농장의 발전을 추동하는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

농장에서는 올해에도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농장자체의 힘으로 문화회관을 개건하고 집짐승우리와 온실도 건설하였으며 마을을 번듯하게 꾸리였다.

농업근로자들의 소질과 꿈을 소중히 여기고 활짝 꽃피워준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였다.

이들처럼 당일군들이 어머니심정으로 매 사람의 소질과 꿈을 속속들이 헤아려보고 활짝 꽃피워줄 때 대중의 정신력은 최대로 분출되고 로동당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릴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기술학습을 통해 본 혁신적인 일본새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제4작업반 부문당위원회에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제4작업반이 최근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분석해보면 특징적인것이 있다. 농산기사, 창의고안명수들이 많은것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비결을 묻군 한다. 그때마다 농장원들이 하나같이 입에 올리는것이 있다. 하루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김없이 진행하군 하는 기술학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농업과학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최신농업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반에서 진행하는 기술학습에서 주목되는것은 학습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이것이 철저히 영농실천에 발을 붙이고 진행되도록 하는것이다.

이곳 부문당위원회에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언제인가 거름생산전투가 한창 벌어지던 때였다. 분조별거름생산정형에 대한 총화가 있었는데 실적이 높은 반면에 일부 분조들이 생산한 거름의 질이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그 원인을 해당 분조 농장원들의 일본새가 깐지지 못한데서 찾았지만 부문당비서 강봉렬동무는 그렇게만 여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들의 농업과학기술지식이 원만한 높이에 있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다.

모르고서는 아무리 욕망이 커도 농사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없다. 아는것이 힘이다.

문제를 이렇게 본 부문당비서는 작업반장 김정섭, 기술원 박영선동무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끝에 그 방도를 매일 작업시작전에 기술학습을 진행하여 농장원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 찾았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하루작업시작전에 기술학습을 짝짝 진행하게 하는 한편 그 실효를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형식과 방법을 새롭게 하였다.

우선 강사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작업반장이나 기술원이 주로 강의하던 종전과 달리 오랜 농장원으로부터 갓 들어온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출연하여 문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모든 농장원들의 수준이 부쩍 오르게 되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 강의의 사전준비에 큰 품을 넣은것은 두말할것 없다.

기술학습과정이 누구나 높은 열의를 가지고 서로 배워주고 배우는 과정으로, 론쟁의 과정으로 되였으니 학습의 실효가 얼마나 컸겠는가.

부문당위원회에서는 다음으로 기술학습을 철저히 당면한 영농실천과 밀접히 결부하도록 하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그시그시 제기되는 영농과제들에 따라 기술학습의 내용들을 옳게 선정하여 그 생활력이 최대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것은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실천속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영농실천을 놓고 농장원들의 인식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학습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갔다.

이런 기술학습은 농장원들을 기술혁명수행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작업반에서는 《남농1》호탈곡기를 새롭게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기술혁명수행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렇듯 기술혁명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 과정에 창조의 능수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사상혁명, 문화혁명도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작업반에서는 말겨진 알곡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제4작업반 부문당위원회에서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대중운동을 계속 창발적으로 전개하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3대혁명소조사업에 큰 힘을=

믿음과 정으로 가꾼 알찬 열매

서평양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발기한 기술혁신문제를 놓고 진행한 서평양기관차대 일군들의 협의회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주일에 한번씩 기술혁신문제를 정상적으로 토의하군 하는 이곳 일군들이였다.

소조원들이 기술혁신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을 굳게 믿고 필요한 조건을 적극 보장해주군 하는 이곳 일군들이여서 어느 한 설비에 원격조종장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소조원들의 발기를 놓고도 그들은 함께 모여앉아 적극 밀어주기로 제꺽 토의결정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 기술혁신안을 제기하였을 때 일부 사람들은 종전처럼 수동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들을 했었다. 하지만 초급당비서 김춘근동무는 문제를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기관차수리때 차체와 차축해체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상이나 줄이고 해체시간도 대당 한두시간씩 앞당길수 있는 원격조종장치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소조원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대장 박호철, 참모장 조연동무들도 소조원들이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섰다.

소조원들에게 과업을 주어 이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자재, 부속품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일군들은 스스로 그 해결을 위해 뛰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기들을 믿어주고 기술혁신안을 실현하도록 적극 도와나서는 일군들을 보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몇달만에 끝내 원격조종장치를 받아들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기관차수리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기관차대에서 전기기관차수리에 필요한 치차들을 자체로 가공할 기술혁신목표를 세우고 못쓰게 된 치절반을 살리기 위한 전투를 벌릴 때였다.

이 과업을 받은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있을 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에게 치절반을 새것처럼 원상복구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소조원들은 당조직의 믿음에 보답하자고 하면서 지혜와 열정을 합쳐 한달 남짓한 기간에 치절반을 새것처럼 만들어놓아 기관차수리에 적극 이바지하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소조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들에게 따뜻한 정을 쏟아부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여러대의 콤퓨터도 마련해주었으며 겨울에도 뜨뜻이 지낼수 있도록 현장휴계실도 잘 꾸려주고 생활조건보장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영예군인인 소조원 리철민동무가 건강한 몸으로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할수 있도록 그의 가정을 찾아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고 보약도 마련해주었다.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다심한 사랑은 그가 기술혁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그는 전차선전압수감에 의한 자동전압조종장치를 발명하여 전기기관차들의 운행에서 걸리고있던 문제를 풀고 국가발명증서를 받았다. 3년동안 근 20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철도수송에 크게 이바지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신순철, 김춘일, 김주성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도 언제나 창조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기술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도록 이끌어주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에 의하여 두해동안에만도 2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기관차대의 콤퓨터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소조원들에 대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뜨거운 믿음과 정이 낳은 알찬 열매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창조의 구슬땀

은천군 덕천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살초제를 올해농사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을 때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제의를 놓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극미량살초제에 대한 도입은 농장조건에서 적합치 않다는것이였다. 하지만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농사를 하는 길만이 알곡수확고를 높여 나라의 쌀독을 가득채우는 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새 기술보급에 힘을 집중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장원들이 우리 식의 살초제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치도록 함으로써 살초률을 훨씬 높이였다.

온 한해 드넓은 포전들을 뛰여다니며 우리 식의 살초제의 효률을 높이기 위해 3대혁명소조원들이 흘린 땀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듯 농장벌에 펼쳐진 작황속에는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의 창조의 구슬땀도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지혜를 합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고있는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함흥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전력증산투쟁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결사관철의 실천으로 화답하자

세대를 이어 불타는 영웅의 넋

2.8직동청년탄광 5갱 탄부들

많은 사람들이 직동의 영웅탄부 김유봉동무를 잊지 않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으로 취재차를 달리며 우리가 맨 처음으로 그려본 사람도 바로 그였다.

온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 창조와 위훈의 불을 지피던 시대의 전형인 영웅탄부, 그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그가 있었더라면 당이 더 많은 석탄생산을 호소한 이 시각에 한몫 단단히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직동탄전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돌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선배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후대들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되게 됩니다.》

2.8직동청년탄광의 갱입구로 가는 길에 대형속보판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붉은 줄들이 기세좋게 키돋움을 하는 사회주의경쟁도표도 있었다.

제일먼저 한눈에 안겨온것은 5갱의 붉은 줄들이였다. 우리와 동행한 탄광일군도 거기에 눈길을 박고있었던 모양인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김유봉동무가 일하던 5갱입니다. 지금도 영웅의 숨결이 세찬 곳이지요.》

영웅의 숨결, 그 말은 우리를 저으기 흥분시키였고 발걸음마저 5갱으로 이끌어갔다.

5갱의 탄부들과 하루낮, 하루밤을 보내며 우리는 영웅의 숨결이 아직도 세차다고 한 일군의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수 있었다.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당의 호소가 전달된 그날 5갱의 고속도굴진1소대 굴진공들인 윤명렬, 류춘남, 리정락동무들은 대휴도 뒤로 미루고 막장으로 달려나왔다. 한치한치의 굴진에 조국의 전진속도가 달려있다고 할수 있는 이 비상한 시각에 휴식이 다 뭔가고 하면서.

이런 불같은 정신은 채탄2중대 대원들인 정금일, 장순철, 김경호 동무를 비롯한 많은 채탄공들의 심장속에서도 활활 타올랐다.

채탄3중대 2소대장 리영선 동무는 지난 8월말 작업과정에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있던 참이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섰는데 소대장인 내가 집에서 앓아뭉갠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는 자기자신에게 이렇게 웨치면서 다리에 감은 붕대를 작업복 자락속에 숨긴채 소대가 일하는 채탄장으로 씩씩하게 들어섰다.

당이 더 높은 석탄증산에로 부른 그 시각 5갱의 굴진공들과 채탄공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전호를 차지하였다.

하다면 석탄증산을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그들의 순간순간은 어떻게 흐르고있는가.

채탄4중대 1소대 선동원 강기영동무는 얼마전부터 매일같이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지고 입갱하는 전차에 올랐다.

《선동원동무, 그게 뭐요?》

첫날에 소대원들이 호기심이나 물었지만 그는 눈으로만 조용히 웃을뿐 종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막장에 다달았을 때에야 배낭아구리를 풀었다. 그속에서 나온것은 톱, 함마를 비롯하여 준비굴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공구들이였다.

《공구가 일한다는 말도 있지 않소.》

입갱할 때의 물음에 대한 대답인듯 그가 하는 말에 이번에는 소대원들이 물먹은 벙어리가 되고말았다.

그들은 강기영동무가 간밤을 새워 마련해온 공구들을 소중히 쓸어볼뿐이였다. 말없이 오고간 당부와 맹세속에 소대는 물론 중대의 생산실적은 껑충 뛰여올랐다. 채탄4중대의 작업굴진과 채탄속도가 종전보다 비할바없이 빨라진 사연을 알게 된 갱일군들도 강기영동무의 두손을 꽉 잡아주었다.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이며 김유봉영웅의 체취가 그대로 슴배여있는 채탄5중대의 탄부들도 혁신의 봉화를 더 높이 들었다.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더 높은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투쟁목표와 함께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중대당세포비서 최광식동무와 채탄공 탁경남동무를 비롯한 많은 탄부들이 하루계획을 두몫, 세몫 넘쳐 하고도 만족을 모른다.

다음교대의 작업굴진을 위한 동발나무들을 억세게 박아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 넘치는것은 무엇이였던가.

영웅의 넋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는 맹세였다. 중대의 10만t생산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친 김유봉동무처럼 자기 하나의 혁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의 혁신과 승리를 위해 헌신한다는 크나큰 영예와 보람이였다.

막장마다 착암기들이 우릉우릉 용을 쓰고있었다.

깊은 땅속의 레루우에서 번쩍이는 석탄을 실은 탄차들이 줄줄이 달리고있었다.

그 어느 막장에서나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그것은 정녕 충정과 애국으로, 결사관철의 위훈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끓이던 영웅탄부의 세찬 숨결이였다.

오늘도 불타는 영웅의 넋, 세차게 높뛰는 영웅의 숨결,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5갱 일군들과 탄부들의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의 순간순간은 이처럼 영웅의 숨결, 영웅의 넋으로 흐르고있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5갱만이 아닌 직동의 전체 탄부들이 위대한 당에 기어이 드리고야말 충정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쟁쟁히 들을수 있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월봉탄광 회둔갱 채탄3중대 가족들

탄전의 아름다운 꽃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월봉탄광 회둔갱 채탄3중대는 탄광적으로 널리 알려진 혁신자집단이다. 그들은 3월에 벌써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했고 6월초에는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쳤다.

얼마전 당의 부름을 받들고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회둔갱의 탄부들모두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던 때였다.

여러명의 녀성들이 갱당조직을 찾아왔다. 허창옥, 최영순, 김현령, 안순애동무를 비롯한 채탄3중대 가족소대원들이였다.

그들은 지금 온 탄광이 석탄증산을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고 전체 인민이 석탄전선을 지원하고있는데 탄부가족인 자기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고, 아무 일이나 좋으니 과업만 달라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당일군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시기에도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남편들을 도와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온 그들이였던것이다.

그후 채탄3중대 가족소대원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속에 채탄공들의 일손을 돕는 일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리였다. 막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더 통이 크게 벌려나갔고 격동적인 예술선동으로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뜻하지 않게 막장이 붕락되면서 그속에 채탄공 김정철, 리형남동무들이 갇히게 되였다. 중대장 임성일동무와 당세포비서 김기복, 소대장들인 서창룡, 서영일, 김성학, 공훈탄부 김시호동무들이 붕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의 앞장에 섰다.

여러 시간에 걸치는 긴장한 전투끝에 붕락구간을 극복하고난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김정철, 리형남동무들이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그속에서도 작업굴진을 위해 동발을 세우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이 한치한치 세워간 5m구간의 동발목을 바라보는 탄부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날 붕락구간을 성과적으로 극복한 기세드높이 전투원들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전투를 마지막 고비에서 다그치고있던 때였다.

별안간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여러명의 채탄공들이 막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큼직한 지함들이 들려져있었다.

《중대장동무, 가족소대원들이 붕락극복전투를 성과적으로 끌벤 중대에 지원물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격려편지라던지…》

편지를 펼쳐든 임성일동무가 큰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오늘의 전투성과를 축하함. 성대한 축하연을 마련해놓고 기다리고있음. 가족소대원일동.》

순간 막장이 떠나갈듯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남편들을 위해 바쳐가는 안해들의 진정과 헌신에 고무된 탄부들은 그날 석탄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리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지금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하고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열의는 비할바없이 높다. 누구라 할것없이 일군들모두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전투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전력생산을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자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군들은 생눈길을 헤쳐나가는데서 척후병이 되고 화선에 나가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돌격전의 맨 앞장에서 나갈 때 끊임없는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내려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겠다.

하여 나라의 전력생산의 큰 몫을 담당한 기업소답게 당정책관철의 맨 앞장에서 나가겠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기사장 김 철 호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우리 직장에서도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전력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에서는 교대별생산이 빈틈없이 맞물리고 모든 설비들에서 최대한의 효률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더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특히 석탄분쇄기를 비롯한 주요설비들의 만가동이 보장되고있으며 설비운영과정에 불비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제때에 수리정비함으로써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직장안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밑에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것이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때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힘있게 일으켜나갈 때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 우리는 교대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전력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나가겠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직장장
고 광 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우리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서 타빈직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직장안의 모든 호기들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발전소의 전력생산이 좌우된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고 만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효률을 최대한 높여 한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 진행중에 있는 설비들의 보수와 1호타빈보수를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대중적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가겠다.

당면하게는 모든 작업공정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만부하를 적극 보장해나가겠다.

순천화력발전소 타빈직장
책임기사 김 병 구

힘있는 정치사업은 탄부들을 위훈에로 부른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형봉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탄광이 자랑하는 혁신자가정

덕성탄광 공훈탄부 김룡준동무와 그의 자식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성탄광 로천갱에서 일하고있는 김룡준동무의 가정에는 자랑도 많다. 가장인 김룡준동무는 공훈탄부이고 두 아들 역시 이름난 혁신자탄부들이다. 맏사위와 둘째딸도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탄광의 당초급일군, 종업원이다.

신의주시의 어느 한 공장에서 일하던 김룡준동무가 당의 호소를 받들고 개발이 한창이던 탄광으로 달려온것은 48년전의 일이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깨끗한 량심과 불같은 헌신으로 살며 일해온 김룡준동무에게 조국은 로력훈장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안겨주었다.

몸은 비록 지하막장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당중앙의 불빛과 하나로 잇고 사는 김룡준동무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말없는 교양이 되고 참된 삶의 거울로 되였다. 그리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맏이인 김성철동무가 제대되여 아버지와 함께 탄광에서 일하게 되였다.

둘째인 김성일동무도 제대되여 형의 뒤를 이었다. 그는 굴진공으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헌신의 구슬땀을 많이 흘리였다.

그는 곧 소대의 혁신자로 이름을 날렸고 로천갱 굴진소대장의 임무를 맡게 되였다. 이어 3갱 갱장이 되였다.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전개력, 뜨거운 인정미로 탄부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2년도 안되는 사이에 3갱을 일잘하는 단위로 키워세운 김성일동무에게 당조직에서는 탄광적인 석탄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5갱 갱장사업을 맡겨주었다.

김성일동무는 당의 믿음에 석탄증산실적으로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열심히 일하였다.

김성일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5갱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맏사위와 둘째딸도 탄광에서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얼마전 모든 힘을 석탄생산에 증산을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고 전체 인민이 석탄전선을 지원하고있는데 탄부가족인 자기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고, 아무 일이나 좋으니 과업만 달라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당일군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시기에도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남편들을 도와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온 그들이였던것이다.

그후 채탄3중대 가족소대원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속에 채탄공들의 일손을 돕는 일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리였다. 막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더 통이 크게 벌려나갔고 격동적인 예술선동으로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뜻하지 않게 막장이 붕락되면서 그속에 채탄공 김정철, 리형남동무들이 갇히게 되였다. 중대장 임성일동무와 당세포비서 김기복, 소대장들인 서창룡, 서영일, 김성학, 공훈탄부 김시호동무들이 붕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의 앞장에 섰다.

여러 시간에 걸치는 긴장한 전투끝에 붕락구간을 극복하고난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김정철, 리형남동무들이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그속에서도 작업굴진을 위해 동발을 세우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이 한치한치 세워간 5m구간의 동발목을 바라보는 탄부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날 붕락구간을 성과적으로 극복한 기세드높이 전투원들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전투를 마지막 고비에서 다그치고있던 때였다.

별안간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여러명의 채탄공들이 막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큼직한 지함들이 들려져있었다.

《중대장동무, 가족소대원들이 붕락극복전투를 성과적으로 끌벤 중대에 지원물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격려편지라던지…》

편지를 펼쳐든 임성일동무가 큰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오늘의 전투성과를 축하함. 성대한 축하연을 마련해놓고 기다리고있음. 가족소대원일동.》

순간 막장이 떠나갈듯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남편들을 위해 바쳐가는 안해들의 진정과 헌신에 고무된 탄부들은 그날 석탄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본사기자 현 경 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과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민족만대의 룡성번영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수행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6일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남자축구팀 인도네시아팀을

4:1로 압승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의 남자축구팀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인도네시아팀을 이기고 준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조별련맹전경기들에서 중국팀과 파키스탄팀을 가볍게 물리치고 6조에서 1위로 승자전단계에 올라온 우리 팀이 26일 5조에서 2위를 한 인도네시아팀과 16강자전에서 대전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상대팀선수들의 공격을 앞선에서 철저히 제압하면서 재빠른 역습속공으로 인도네시아팀의 골문에 련속 위협을 가했다.

경기시간 19분경 20번 서경진선수가 구석차기한 공을 19번 박광룡선수가 문전 7m지점에서 머리받기한것이 그대로 그물에 걸려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사기충천한 우리 선수들의 좌우측돌파와 맵짠 공격으로 상대팀문전에서 자주 혼전이 벌어지는 속에 경기시간 40분경 12번 리영직선수가 공격마당 좌측 반측면에서 넘겨차기한 공을 돌입하던 7번 조광선수가 문앞 8m지점에서 또다시 머리받기로 한 골을 넣었다.

그로부터 1분후 19번 박광룡선수가 종짬으로 밀어준 공을 11번 정일관선수가 상대측의 문전 15m지점에서 차넣은것이 성공됨으로써 전반전은 우리 팀이 확고한 우세를 차지한 가운데 끝났다.

후반전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공격을 들이대던 우리 팀은 경기시간 67분경 혼전속에 튀여나오는 공을 재빠르게 돌입한 11번 정일관선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5.5m지점에서 차넣음으로써 네번째 골을 기록하였다.

우리 팀은 이날 경기에서 인도네시아팀을 4:1로 이김으로써 준준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 중국팀을 이기고

준결승경기에 진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군조선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딸들인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26일에 진행된 중국팀과의 준준결승경기를 보기 좋게 치르었다.

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는 두 팀간의 경기는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별련맹전경기들에서 단 한 점의 실점도 없이 상대팀들을 압도한 우리 선수들은 자신만만한 배짱과 필승의 신심에 넘쳐 경기장에 나섰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중간지대의 철저한 장악과 좌우측면돌파에 의한 폭넓은 공격으로 상대팀문전을 련속 위협하였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량팀의 적극적인 공격전은 맹렬하였지만 전반전은 득점없이 끝났다.

경기는 후반전에 들어와 더욱 치렬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우리 선수들은 강한 조직력과 집단력, 이악한 공격자세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며 지칠줄 모르는 청춘의 열정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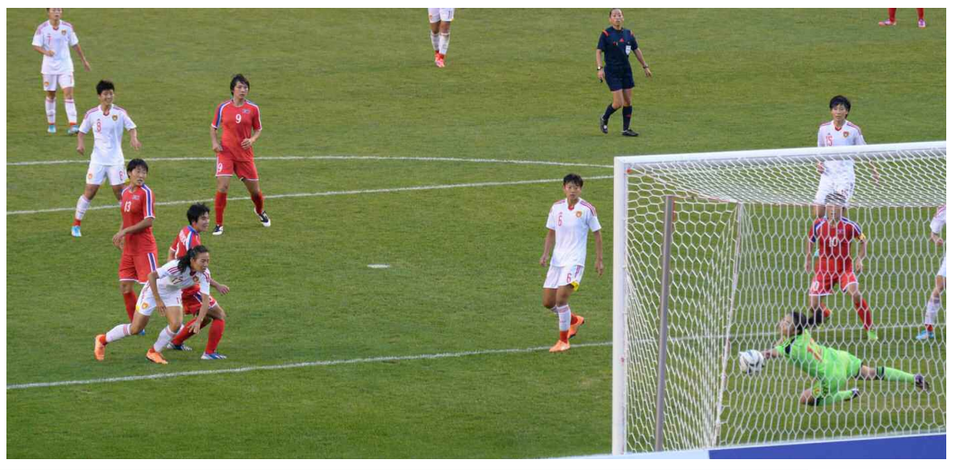
완강한 투지, 기묘한 전술로 상대팀방어진을 허물며 련속 좋은 득점기회들을 마련하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운영방식은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관중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시간 73분경 공격마당 왼쪽에서 11번 리예경선수가 문앞으로 련락해준 공을 상대팀방어구역에서 득점기회를 노리며 맹활약을 하던 3번 허은별선수가 멋있게 머리로 받아 드디여 중국팀골문의 그물을 흔들어놓았다.

통쾌한 득점으로 하여 기세충천한 우리 팀은 앞선에서의 공빼앗기와 불의적인 차넣기, 역습속공에 의한 문전돌입 등으로 계속 중국팀을 압박하였다.

실점에 당황한 중국팀은 어떻게 하나 경기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선수들을 련이어 교대하며 총공세에로 나왔으나 우리 팀의 철통같은 방어진을 뚫지 못하였다.

조국인민들의 기대와 믿음을 안고 경기를 1:0의 승리로 결속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준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 도착

리동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도착

아나똘리 돌가체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귀국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몽골국립종합대학대표단, 인민대학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학대표단, 대표들, 도이췰란드 베를린자유종합대학 대표, 프랑스 빠리제7종합대학 대표가 2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또한 로씨야의 조선어전문가들이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근혜의 반통일대결망동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 국 평 화 통 일 위 원 회 성 명

지금은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되기를 절절하게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북남정치인들이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유엔총회에서 한 박근혜의 연설은 내외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박근혜는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한 그 무슨 《기조연설》이라는데서 우리의 핵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니 뭐니 하고 훼쳐댔는가 하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발을 내뱉았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거들며 《국제사회의 우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느니 하고 기염을 토하였으며 지어 누구나 경멸하는 인간쓰레기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넉두리까지 늘어놓았다.

피뢰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였지만 집권자가 직접 유엔무대에서 극악한 망발질을 해댄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가뜩이나 위태로운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국에로 몰아넣는 극히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박근혜가 그 누구의 《핵포기결단》을 운운한것은 우리 핵의 성스러운 사명과 위력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한갓 식민지주구의 가소로운 수작질에 불과하다.

우리의 핵은 미국의 가증스러운 침략과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담보하는 자주와 정의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초보적인 식견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더우기 피뢰따위가 《핵포기》를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여도 지나가는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것쯤이야 알아야 할것이다.

이번에 오바마도 언급하지 못한 우리의 핵에 대해 유독 박근혜가 여기저기서 뺨맞을줄 알면서도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중뿔나게 나서서 온갖 아양을 떨며 입을 추하게 나풀거리는 가련한 몰골에 역겨움을 금할수 없다.

박근혜가 우리에게 그 무슨 《경제지원》이니 뭐니 하는데 이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일이다.

오늘 우리는 주체적인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자립경제의 강력한 토대우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해 폭풍쳐 비약하고있다.

제코도 씻지 못하여 안팎으로 뭇매를 맞고있는 박근혜는 그 누구의 경제에 대해 운운할것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남조선경제를 걱정하고 생활고에 아우성치는 제 집안이나 돌아보아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해나선것은 인권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리해도 없는 황당무계한 정신병자의 넉두리이다.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세금이 없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나라,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맡아 돌보아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이러한 인민을 위한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제국주의반동들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조작하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전례없이 팡분하고있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박근혜패당이 돌격대로 나서서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은 우리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에 극도로 전률하여 그에 앙심을 품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자는것외에 다름이 아니다.

박근혜가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철면피의 극치이다.

《유신》독재부활과 독선,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이다.

동족이 사는 공화국에 왔다가기만 해도 《보안법》에 걸어 감옥에 처넣고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쇠고랑을 채우며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고있는 곳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바다에 수장되여 죽어가는데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가 7시간동안이나 종적을 감추고 딴장을 보아 내외여론의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면 청와대앞에서 진상규명을 피타게 웨치는 《세월》호유가족들의 절규마저 그 책임과 후환이 두려워 오늘까지 매정하게 외면하여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지금 피뢰들이 서울에 그 무슨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내온다 어쩐다 하고 고아대고있는데 그것이 바로되려면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인권유린실상부터 파헤치고 만천하에 고발해야 할것이다.

박근혜는 이번 유엔연설에서 얼토당토않은 《세계평화공원조성》이요 뭐요 하며 요설을 늘어놓았는데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분계선지역에 《평화공원》을 건설할수 있으며 설사 건설한다 해도 누가 이 위험한 곳에 오겠다고 하겠는가.

분렬의 장벽을 없애고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면 제 애비가 이 나라 강토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아 짐승들조차 오갈수 없게 만든 세상에 유일무이한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하며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문제부터 리행해나서야 한다.

이번에 박근혜는 지금까지 자기가 떠들어온 《신뢰》니, 《판계개선》이니 하는것들이 새빨간 거짓이며 《흡수통일》의 개꿈을 꾸고있다는것을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그는 《도이췰란드통일이 새로운 유럽의 주추돌》이니 뭐니 하면서 《흡수통일》을 로골적으로 운운하였는데 과연 누구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겠는지 알고나 있는가.

할애비처럼 섬기는 미국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피뢰패당이 《흡수통일》에 환장이 되여 정 대결과 전쟁을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한자들은 징벌을 면할수 없으며 우리의 정의의 징벌은 자비를 모른다는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말한다.

박근혜의 이번 악담은 자기의 흉악한 본심을 드러내고 우리와의 정면대결을 선포한것으로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다.

유엔무대에 가서까지 독기서린 치마바람을 일구며 동족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가는 곳마다 불집을 일으키는 박근혜의 망동이 초래할것은 민족의 불행과 재난밖에 없다.

이쪽저쪽에 요사를 부리며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정치매춘부, 대결광녀의 추태에 세상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고 침을 뱉고있으며 이러한 추물을 끼고돌아야 화만 당하게 된다는것이 박근혜의 이번 유엔행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박근혜패당의 이번 대결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9월 26일
평 양

평화파괴자, 인권유린자들의 넉두리

요즘 피뢰들이 여기저기 코를 들이밀고 그 누구의 《핵문제》니, 《인권증진》이니 하며 반공화국대결자세를 로골화하고있다. 며칠전 피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는 제18차 아세안지역연단 국방대학총장회의에 나타나 《북의 핵과 미싸일》은 조선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걸고들면서 그에 대비한 《협력》을 구걸하였다. 한편 피뢰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미국무장관이 주최한 그 누구의 《인권》관련 장관급행사라는데서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개발과 《인권증진》주장은 《모순》이라고 푸들거리면서 그 무슨 《인권대화》니, 《권고리행》이니 하고 주절거렸다. 그야말로 뻔뻔하기가 양푼밀구멍같은자들의 주제넘은 넉두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한민구역도가 우리의 핵억제력을 세계적인 《평화위협요인》으로 물고늘어졌는데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현실외곡이다.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평화파괴자는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핵전쟁 현혼증에 빠져있는 피뢰호전광들이다. 피뢰들이 지난 8월 미국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맞춤형억제전략》을 실전적용하면서 북침핵선제공격을 거리낌없이 공언한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지배전략을 위한 군사적수단의 하나로 간주하는 《THAAD》의 남조선반입에 열을 올리는것도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피뢰패당의 호전적흉심의 발로이다. 피뢰들이 원거리작전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신속기동부대, 《전략적유연성》실현을 위한 《미래형사단》이라고 하는 미2사단과 피뢰군을 범벅이하여 련합사단 창설놀음을 벌리는데 대해서도 내외여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를 노린 미국의 침략정책에 복종하는 무력편성이라고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있다. 피뢰들이 아무리 《평화의 사도》행세를 하였댔자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공조를 청탁해나선 식민지피뢰의 가련한 몰골을 가리울수 없다.

부언하건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는것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물리적힘으로 제압하는 우리의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피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역도가 우리의 핵억제력과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그 무슨 《모순》을 떠들어댄것도 가관이다. 인권은 곧 국권이다. 국권을 빼앗기면 인권도 없다. 외세에 국권을 짓밟힌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인권유린의 폐허속을 헤매이는가를 오늘의 세계는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전락된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가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있지 않는가. 침략군의 군화발에 너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롱락당하고 미국식야만성과 패륜패덕으로 길들여진 식민지고용군의 가혹한 인권참상을 두고 온 사회가 분노의 치를 떨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어데다대고 감히 《인권》이고 뭐고 나발질인가.

우리의 핵억제력은 외세의 침략을 격파분쇄하는 자주권수호의 군사적담보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보검이다.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보다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침략과 강권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대중의 참다운 삶의 권리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 명명백백한 리치를 외면하고 구린내나는 저들의 인권허물을 비단보자기로 감싸며 《인권대화》니, 《권고》니 하고 너덜대는 피뢰들의 추태는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원래 자기 처지를 망각한자들이 얼뜬 소리를 늘어놓기가 일쑤이다. 피뢰들은 그 어떤 요설로써도 평화파괴자, 인권유린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적대세력들의 침략을 짓부시는 조선반도평화수호의 보검이며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수호의 담보인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리 효 진

남조선공무원로조원들 악정에 항의하여 투쟁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22일 남조선의 전국공무원로조 성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피뢰패당의 악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피뢰여당과 년금학회가 회관에서 공무원들의 년금을 줄이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 년금개혁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지였다. 이에 격분한 로조원들은 토론회시작전부터 년금학회가 제안한 개혁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웨치며 항의하였다.

《새누리당》패거리가 《축사》라는것을 강행적으로 하며 발악하였지만 로조원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눌리여 토론회는 마지막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나가라!》

기 네 단 체 불 레 찐 발 행

기네조선친선협회에서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6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8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남조선에 왜 미군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글은 근 70년전인 1945년 9월 8일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오늘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제땅도 아닌 남조선에 왜 미군이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지배주의야망의 결과》, 《불법무도한 점령》 등 소제목의 글들에서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여온 미국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에 미군을 비법적으로 들이민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

글은 《영구주둔을 노린 술책》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의 리승만피뢰정부를 내세워 미군의 영구강점을 합법화하려고 획책하였다.

지난 조선전쟁후 남조선주둔 미군은 계속 증강되였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도 리행하지 않았다.

랭전이 종식되고 쏘련이 해체된 후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의 명분이 통하지 않게 되자 미국은 《북조선위협설》을 요란하게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조선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을 끊임없이 강행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목적도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데 있다.

미제침략군이 탄약을 내버린 사실 폭로

18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탄약을 무더기로 쓰레기장에 마구 내버린 사실이 폭로되여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8월 피뢰경찰이 미군부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수색과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관계자는 탄알들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미군사격장 쓰레기장에서 발견된것이라고 밝혔다.

오래전부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주둔지들마다에서 기름과 독성물질들을 마구 흘려보냈으며 고엽제를 비롯한 독해물까지 내버려 강토를 극도로 오염시켰다. 지어 1972년에는 사고가 난 핵탄두까지 남조선내에서 몰래 폐기처리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년간에는 보판기일이 지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는 쓰레기탄약을 피뢰군에 넘겨주다 못해 아무데나 내버림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특 별 법 제 정 을 요 구 하 여

남 조 선 시 민 들 초 불 투 쟁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20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304명의 작가, 시민들이 쓴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재 미 동 포 들 항 의 투 쟁 전 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미국의 뉴욕, 로스안젤스, 워싱톤, 버지니아주에서 모여온 재미동포들이 21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피뢰총령사관앞에서 《세월》호참사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는 공동성명이 랑독되였다.

성명은 남조선집권자가 《세월》호참사과정에서 총체적무능함을 드러내고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하였다.

수백명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집권자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희생자가족들과 남조선 각계층 민중, 재미동포들은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와 《정부》가 참사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있기에 재미동포들이 더욱 분노를 터뜨리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참사만든 청와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유엔본부주변까지 시위를 벌린 그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피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자주,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2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자주, 평화통일운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모임에서는 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강정구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평통사가 결성이후 지난 20년동안 온갖 란압과 시련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기간 미군철수, 미국과의 동맹폐기 등의 문제들을 여론화하며 투쟁해온것은 가장 큰 성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도 단체가 남조선, 미국, 일본 3각군사동맹구축반대, 조선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향해 함께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피뢰여당의원의 추태를 폭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4일 피뢰여당의원의 성추행행위를 폭로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가 골프장에서 녀성봉사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한때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그의 천박한 인권의식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치스러운 행동에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의 성추행이 오죽 심했으면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도중에 봉사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겠는가고 지적하였다.

박희태의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것으로 하여 골프장녀성들속에서는 이미전부터 《피해야 할 손님》으로 소문이 났다고 조소하였다.

그의 나쁜 버릇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고 하면서 사설은 녀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피뢰군부대에서의 몸서리치는 가혹행위

15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피뢰1공수특전려단소속 한 중사가 하급들에게 전기고문을 방불케 하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자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하급들의 입술에 무전기전기선을 련결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 몸서리치는 야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야수의 무리, 살인무리들이 살판치는 피뢰군에서 이런 끔찍한 광경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

만 경 대 방 문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꾸바 라비오팜그룹대표단 단장 후안 마누엘 델 발례 또레스는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나는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에 대하여 깊이 되새겨보게 된다.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김일성동지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의 업적은 영원할것이다.

책임성은 실력과 실천력으로 검증된다

평 안 북 도 체 신 관 리 국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날에는 일군들의 실력이자 곧 실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조국이 맡겨준 일터가 있고 어깨우에 지워진 임무가 있다. 더우기 대오의 앞장에 서야 할 일군들의 경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는 말고있는 한개 단위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적경제발전, 나아가서 인민경제 한개 부문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라고 말할수 있다.

하다면 일군들 누구나 지녀야 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그것은 무엇으로 검증되는가.

평안북도체신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그에 대한 몇가지 대답을 찾아본다.

최근 이곳 체신관리국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는 체신현대화를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성과를 거둔것이라고 볼수 있다. 한해 남짓한 기간 창성군을 비롯한 여러 군체신소들이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고 체신현대화실현에서 앞장서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체신현대화실현에서 중심고리를 옳바로 선정하고 이신작칙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낀 도체신관리국일군들의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특히 창성군체신소를 현대화의 본보기로 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여러 군체신소들에 일반화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있는것은 아주 주목할만 한 문제점이다.

지난해 창성군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후 군체신소를 돌아보는 국장 문판덕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나라의 체신을 현대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에 비추어볼 때 이곳 체신소는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했다.

다른 군체신소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발전하는 시대와 당의 의도를 가슴깊이 되새겨볼수록 한개 도의 체신을 맡은 일군으로서 자책감은 컸다.

다음날 관리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도적으로 체신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문판덕동무가 이 문제를 내놓았을 때 모든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체신현대화라고 할 때 많은 자금과 로력,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였던것이다. 하지만 책상머리에 앉아 이런저런 조건타발만 해서는 당의 높은 뜻에 따라설수 없었다.

그러면 그 예비를 어디서 찾아야 하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겠는가. 토론을 벌리는 속에 도소재지나 조건이 좋은 곳에서부터 체신소들을 선택하여 하나하나 해제끼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이때 문판덕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일 조건이 불리한 창성군에서부터 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올립시다. 짧은 기간에 이곳 체신소를 현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도적인 체신현대화의 돌파구를 열고 다른 군들에서도 얼마든지 체신현대화를 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줍시다.》

그의 제의는 당조직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렇게 되여 창성군체신소의 현대화가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지게 되였다.

일부 다른 단위들을 보면 일군들이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작전도 하지만 그것이 빈종이장으로 남아있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례도 없지 않다.

보다 중요한것은 실천이며 결과이다.

평안북도체신관리국 일군들은 실지로 돌격로의 앞장에 선 화선지휘관들처럼 들끓는 현실속에 몸을 잠그고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힘으로 풀어나갔다.

협의회이후 창성군에는 관리국일군들과 각 시, 군체신부문 일군들로 무어진 수십명의 돌격대가 도착하였다.

실지 현지에 내려와서 일을 벌리자고 보니 돌격대원들의 생활문제, 물동량운반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난문제는 공사에 많이 쓰이는 골재보장이였다.

문판덕동무는 현지에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이제 들여오는 새 설비들의 위치, 그 크기에 맞게 방들을 변경시키는 문제 특히 군에서 해결할수 없는 골재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등 걸린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설비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맞게 문판덕동무는 정보통신국의 기술자들을 데려다 창성군체신소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습도 조직하고 방송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도 적극 추진시켰다.

일군들은 우에서 보장해줄것을 기다린것이 아니라 도안의 산간벽지에까지 직접 내려가 합성수지를 비롯한 많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련관단위와 협동하여 수천대의 고성기를 생산하여 주민세대들에 공급해주었으며 합리적인 전원공급체계를 세워 중단없이 당의 목소리가 언제나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군체신소의 현대화는 마침내 실현되였으며 이곳을 돌아본 시, 군체신부문 일군들도 신심을 가지고 체신현대화에 발벗고나서게 되였다.

※ ※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다. 밤을 새워가며 보름 남짓한 기간에 관리국청사의 면모를 일신시킨 이야기, 부업지에 어떻게 되여 큼직한 버섯재배장과 온실이 새로 일떠서고 7００여평의 딸기밭이 조성되였으며 6００여그루의 파일나무가 뿌리를 내려 종업원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되고있는가를. 출장길에서도 수도의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한 종업원을 찾아 힘을 안겨준 사람은 누구였으며 아버지들이 섰던 초소에 자식들을 세워 우리 당의 체신정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도록 이끌어준 사람은 또 누구였던가를.

대오의 앞장에 서야 할 일군의 책임성, 그것은 말이 아니라 높은 실력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검증된다. 실력이 있어야 앞채를 멜수 있으며 실천력이 강해야 해당 부문, 해당 단위를 이끌어야 할 기관차로서의 견인력을 발휘할수 있다.

이것이 문판덕동무를 비롯한 평안북도체신관리국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다.

리 영 민

일 요 일 에 진 행 될 체 육 경 기 들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9시부터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 녀자경기가 신흥산림과 청천강림, 월미도림과 소백수림사이에 벌어진다.

남자경기는 14시 30분부터 홰불림과 경공업성림, 소백수림과 판모봉림사이에 있게 된다.

이날 10시부터 평양체육관에서 소백수림과 형제산림사이의 녀자배구 1급 도전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일심단결로 승리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조선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경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두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조선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인한 미증유의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조선에서 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안정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일심단결에 있는것이다.》

네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선군정치연구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정의의 위업실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하고있다고 하면서 《선군조선의 승리의 비결은 일심단결에 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조선을 부러워하는것도, 제국주의자들이 원자탄보다 더 무서워하고있는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은 조선식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요인에 대하여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의 국력이 강한것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여기에 조선의 위력한 힘의 원천이 있다. 조선인민처럼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열렬히 흠모하며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세계를 둘러보면 단결을 원하지 않은 정치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혈연의 정으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된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령도자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삶의 전부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여기에 존엄높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원자탄보다 위력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의 천만군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이 땅우에 존엄높은 핵보유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을 껴나 불패의 위용을 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선은 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무진막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조선의 힘은 출중한 령도자를 모신데 있다. 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게 한다.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공고발전시키신 조선의 일심단결은 오늘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인도네시아신문 《더 훠스트 타임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소식을 전하면서 사단의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실 때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더 가까이 세워주시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은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 조선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풍모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이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홍콩잡지 《국제련계》는 《인민적령도자의 풍모》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사랑은 국제사회계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만나시여서는 그들과 뜨겁게 포옹하시면서 귀속말도 나누시고 어린이들이 무랍없이 올리는 청도 들어주신다. 그이께서 수놓아가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은 그이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사랑은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령도밑에 조선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 위원장 와짐 꾸지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조선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선언하시였다. 미림승마구락부는 그이께서 하신 선언이 현실로 되고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곳에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령도력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다.》

그렇다. 세계는 보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세상에 없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머지않아 강성국가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조선의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먄마 미트 타르모출판사 총사장은 9.9절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조선인민을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선군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며 조선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

기네신문 《호로야》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용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높이 떨쳐지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정치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면서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일심단결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은 백전백승의 력사만을 붉은 기폭에 새기며 자주시대의 중심에 거연히 솟아 끝없이 빛날것이다.

김 국 철

수령결사옹위의 화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영국에서는 토론회가, 기네에서는 강연회가 7일과 15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영국신공산당,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영국조선친선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소, 기네 기꼬련합총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9월 22일은 김정숙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65돐이 되는 날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리신 나이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정신이 투철하고 싸움에서 용맹하시였을뿐아니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녀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공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백두광명성으로 안아올리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이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은 김정숙동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가들이 길이 추억해야 할 백절불굴의 혁명투사이시다, 그이께서 보여주신 절대불변의 신념과 따뜻한 인민적풍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기네 기꼬련합총회사 행정관리 및 건설대상책임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며 사상과 로선을 결사옹위하신 항일의 녀성영웅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김정숙녀사이시야말로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이시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이란출판보도물이 7일과 17일에 특집하였다.

도이췰란드 MS려행사 인터네트홈페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사진을 모시고 《1949년 9월 22일, 김정숙녀사의 서거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김정숙녀사의 한생은 비록 짧았지만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35년 9월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가렬처절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수많은 격전장들에서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용감성,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명성을 떨치시였다. 해방후 녀사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특히 새 조국건설의 군사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을뿐아니라 주석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시였다.

※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에서 11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빛나는 생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숙녀사의 생은 비록 짧았으나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김일성주석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주석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시였다.

1935년 9월 김일성주석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가렬처절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수많은 격전장들에서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용감성,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명성을 떨치시였다. 해방후 녀사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특히 새 조국건설의 군사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빼루 아레끼빠시청회관, 브라질은행로조청사, 뽈스까 그단스크종합대학에서 3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찬란한 력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는 형제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6돐을 맞으며 이번 전람회를 진행하게 된다. 전람회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의 력사와 문화,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다. 조선을 훌륭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뽈스까 그단스크종합대학 정치학연구소 소장과 사회과학부 학부장은 오늘 세계는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진보와 변혁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고있다, 이번 전람회가 조선의 현실을 더 잘 알게 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두터이하는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시도서관에서 8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남아프리카의 각계 인사들과 프레토리아시민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참으로 친근한 인민적수령들이시였다, 그분들의 령도밑에 조선은 강력한 나라로 전변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수도 평양에 꾸려진 훌륭한 문화시설들을 보니 조선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인민이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보다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관광의 날

오늘은 세계관광의 날이다.

1979년 에스빠냐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 제3차총회에서는 9월 27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정하고 1980년부터 매해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마다 9월 27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이날에 즈음하여 매번 주제를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한다.

세계관광기구는 국제적으로 관광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인류의 문명과 진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밑에 1975년에 창설되였다. 기구는 세계관광계의 모든 통보들을 교환하는 세계통보기지의 활동을 분석처리해주는 동시에 관광시장형성, 관광기업체들의 활동, 관광발전의 총적계획작성, 관광지역들에 대한 선전, 무역재정의 경제적 및 물질적연구와 분석, 그것들의 문헌화 및 보급활동 등을 진행하는것을 자기 사업의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사명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세계관광기구는 매해 세계관광의 날을 맞으며 관광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성원국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리도록 고무하고있다.

올해 세계관광의 날의 주제는 《관광과 공동체개발》이다. 이번 세계관광의 날 행사는 관광업분야가 자기의 사명과 목적에 맞게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 나라는 1987년에 세계관광기구 성원국으로 된 때로부터 국제적인 관광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관광업의 요구와 원칙들을 준수해나가고있다.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강산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에는 해마다 많은 나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다. 평양과 개성, 남포,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정방산, 룡문대굴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는 훌륭한 관광지들이 많다. 새로운 관광지구들을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관광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사업에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시설들이 수도 평양과 나라의 곳곳에 수많이 일떠섰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관광사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릴것이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에서 항의시위

미국 뉴욕시의 맨하탄에서 21일과 22일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10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기후변화와 같은 절박한 문제들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체스꼬의 쁘라하에서 20일 반나토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2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반나토구호들을 웨치면서 나토가 유럽과 세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들은 나토에서 탈퇴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한편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23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7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심각한 실업위기를 초래하게 될 당국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그것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당국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을 반대하는 일본인들

델구열피해

도미니까에서 최근 뎅구열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20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54명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지진

통가에서 22일 리히터척도로 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판가이로부터 동남쪽으로 68㎞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로씨야대통령 서방의 제재책동 비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8일 한 상봉석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부당한 제재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코에 걸고 가해지고있는 서방의 대로씨야제재는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로씨야정부는 자기의 리익을 지켜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에 대응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며 민족경제발전에 더욱 힘을 넣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에볼라방지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시에라레온대통령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가 18일 에볼라방지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것은 사회발전에 커다란 도전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에볼라는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는 병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주민들이 에볼라의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방지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침략과 제재책동이 실패하였다고 언명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 부상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책동이 실패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의 제재가 첨단군사장비들을 갖추기 위한 이란의 노력을 가로막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란정부와 인민은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물리치고 국방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계속 높여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이란국가복리리사회 위원장 아크바르 하쉐미 라프산쟈니가 21일 자기 나라 주재 팔레스티나대사와의 담화석상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이 실패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침략책동은 팔레스티나인민과 항쟁세력으로 하여금 무장을 잡고 적들과의 싸움에 떨쳐나서게 하였으며 오늘날 강점지역들에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이 머무를 곳이 더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적수공권의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유태복고주의정권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비호두둔한 나라들이 바로 《인권옹호》를 제창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소식

국제배구련맹 2014년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가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뽈스까에서 진행되였다.

2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주최국팀인 뽈스까팀이 결승경기에서 브라질팀을 3:1로 누르고 우승하였다.

도이췰란드팀은 3, 4위전에서 프랑스팀을 3:0으로 이겨 3위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혹심한 가물피해와 그 극복을 위한 노력

땅, 강, 호수 모든것이 메말라가고있다.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가물이 여러해째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올해에는 례년에 없는 왕가물이 휩쓸고있다. 그 피해 또한 혹심하다.

가물은 농업부문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있다. 이로 하여 사람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있다.

유엔이 밝힌데 의하면 해마다 가물로 인한 토지황폐화로 약 1 200만ha의 농경지가 없어지고있으며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실지 적지 않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가물피해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가물이 계속되여 기온이 1.5℃ 올라가면 수확고가 떨어져 농업으로 얻던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있다.

소말리아에서 최근 가물이 지속되여 굶주림현상이 악화되고있다. 지난 11일 개발에 관한 동아프리카나라 정부간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가물로 10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식량불안전상태에 직면하였다. 이것은 6개월전에 비해 20%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부룬디에서는 가물로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스리랑카의 14개 지역에서는 약 115만명의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있다. 스리랑카에서는 꼭창지대들에서 알곡생산이 떨어져 쌀가격이 대폭 뛰여오를것으로 보고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가물현상으로 올해 비내림량이 크게 줄어들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있다. 이것은 목화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목화생산계절에 그 생산량이 50%나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가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파뻬말라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나라의 22개 지역가운데서 17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 지역들에서는 지난 2개월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말라죽고 20만명의 농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은 《장기간의 가물로 농업이 피해를 입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나는 오늘 아침 정부회의에서 17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정령에 수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가물은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산불을 일으키는 등 자연생태환경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칠레에서 1 500여종의 동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데 이것은 가물과 사막화의 영향을 받았기때문이라고 한다.

카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서는 무더위와 가물이 지속된 결과 140건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사실들은 세계적으로 가물피해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손실이 실로 막대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물피해의 심각성을 자각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국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스리랑카정부는 농촌지역들에서 600개의 우물을 새로 파도록 하는 등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였다.

파뻬말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들에 5개월간 약 6 000만US$를 지원하려 하고있다.

세계적으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최근 네데를란드의 한 설계가가 비물을 저장하여 도시공원들에 물을 보장할수 있는 종합적인 물저장의자를 만들었다. 물저장의자는 단추모양의 구멍을 통하여 비물을 모아들여 의자밑 땅속에 설치된 탕크에 저장할수 있도록 설계되였다. 저장탕크는 크기에 따라 500~1 800L의 비물을 저장할수 있다고 한다. 폴리에틸렌을 재생하여 만든 이러한 의자들을 설치하면 도시공원들에서 가물철에도 꽃밭가꾸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물원천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밖에도 가물견딜성이 강한 작물과 품종을 심으며 물기날기를 막고 보다 많은 토양물기를 보존할수 있는 땅다루기방법을 적용하는 등 일련의 농업기술적대책을 세우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가물철에도 농작물의 소출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물보존방법을 연구하였다. 그것은 토양속에 물보존박막을 묻어두어 물분자를 《붙잡아두는》 방법이다. 등고선모양의 이 박막을 작물의 뿌리보다 깊은 곳에 묻어두면 작물에 필요한 물저장과 배수, 뿌리성장을 위한 공간이 형성되게 된다. 오이와 강냉이밭에서 새 방법을 도입한 결과 소출이 각각 145%, 174%로 늘어났다.

물보존박막을 리용하면 농작물재배에서 물소비량을 줄이고 지하수를 보호하면서도 비료와 살충제를 효률적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스코틀랜드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요즘 영국의 스코틀랜드 문제가 론의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18일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가, 영련방에 남아있는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였다. 투표결과 투표참가자의 55%가 독립을 반대하였다.

영국수상은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텔레비죤방송연설을 통해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남기로 선택하여 기쁘다.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영국은 4개의 지역 즉 대브리텐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잉글랜드와 북부의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웨일즈, 아일랜드섬의 북동부를 차지하는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있다. 4개의 지역은 서로 다른 행정체계와 독자성을 가지고있다. 스코틀랜드는 18세기초에 병합되였다.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광범한 독자성을 가지고있는 스코틀랜드의 독립기운이 류달리 강한데 있다. 그 최대의 리유는 경제문제이다. 현재 영국은 다른 서유럽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겪고있다. 막대한 국가채무, 해를 넘기며 지속되는 긴축정책은 스코틀랜드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것을 기회로 스코틀랜드민족당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영국으로부터 분리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리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가까이에 위치한 유전을 손에 넣으면 자원국가로서 부유해질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였다. 이것이 스코틀랜드주민투표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스코틀랜드에서 독립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졌다. 영국정부도 이것을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2012년에 영국정부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가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그에 따라 진행되였다.

한편 주민투표를 승인한 후에도 수상을 비롯한 여러 정객들은 《스코틀랜드가 없으면 우리의 지위는 크게 떨어질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는 주민투표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경우 그것이 불씨가 되여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을 요구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영국정부가 스코틀랜드주민투표결과를 가슴을 조이며 지켜본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투표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운것은 영국인들뿐만이 아니다. 에스빠냐, 벨지끄, 이딸리아 등 적지 않은 서유럽나라들이 이번 투표 전과정을 초조감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유럽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활발해지고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에스빠냐의 까딸루냐주를 들수 있다. 에스빠냐의 까딸루냐주는 국내총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역인 동시에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있다. 이 주에서는 오래전부터 분리독립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었다. 주의 중심도시인 바르쎌로나에서는 지난 11일에도 약 180만명이 모여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까딸루냐주에서는 주민투표를 올해 11월 9일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에스빠냐정부수상은 이러한 투표는 《헌법위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저지시킬 자세를 보이고있다. 시위참가자들속에는 스코틀랜드주민투표에서 독립찬성파가 승리하면 자기들에게도 큰 힘으로 될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스끄문제 역시 에스빠냐정부가 안고있는 골치거리의 하나이다. 바스끄족으로 말하면 유럽에서 지금까지 민족적전통을 가장 많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있는 민족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바스끄자치주는 까딸루냐주와 마찬가지로 독립의식이 강하며 과거 이곳에서는 무장활동도 벌어졌다. 일부 바스끄인들은 나라의 통일을 유지하는 전제밑에 될수록 많은 자치권을 얻을것을 주장하면서 분렬을 반대하고있다. 그러나 바스끄가 에스빠냐에서 떨어져나갈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지역정당이 2012년에 있은 주의회선거에서 제2당으로 되였다.

분리독립을 지향하는 정치세력들은 벨지끄에도 있고 이딸리아에도 있다. 독립기운이 활발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도 부유한것이라고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채무위기로 자기들이 창조한 부를 빈곤한 지방에 빼앗기고있다는 불만이 독립기운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은 주민투표결과가 유럽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이를 두고 서로 엇갈린 평들이 나돌고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스코틀랜드에서의 투표결과로 유럽에서 분립주의기운이 약화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의 분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고 보는 축들도 있다. 이미 스코틀랜드와 영국정부사이에는 독립을 지지하는 주민투표가 실패하는 경우 자치권을 확대할데 대한 약속이 되여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이 영국의 다른 지역들에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활성화시킬것이라고 보고있다. 즉 《도미노효과》가 생겨날수 있다는것이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명백한것은 유럽에서 심화되고있는 분리독립움직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첨예화된 사회정치적모순의 반영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 희

ㄱ-41150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